

'마을과 주민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순창 경천·양지천변 육모정 5곳 현판식

순창읍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경천과 양지천변의 5곳의 육모정이 모두 현판을 달게 됐다.

순창군은 지난 2일 그동안 현판이 없던 3곳 모정에서 각각 현판식을 갖고 마을과 주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황숙주 순창군수와 마을 주민 40명이 참석했다.

이날 현판식을 가진 3곳의 모정은 지난 4월 모정 이름을 공모해 '경천정(鏡川亭)', '사정각(射亭閣)', '양지정(陽之亭)'으로 이름을 지었다.

'경천정(鏡川亭)'은 '거울처럼 맑다'는 뜻의 '경천', '사정각(射亭閣)'은 사정마을의 이름을 따서 지었으며, '양지정(陽之亭)'은 '햇볕이 잘 드는 곳'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순창읍 천변에 있는 육모정 중 군 노인회 앞의 '장수정'과 육천마을 앞의 '육천정'에 이어 5곳의 육모정이 모두 이름을 갖게 돼 앞으로 주민들의 사랑방 및 휴식처로 한층 더 사랑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현판들은 서예가이며 한화자인 고(故) 강암(剛庵) 송성용 선생의 아들인 송하진 도지사가 지난 7월 직접 글씨를 써서 내려 줘에 따라, 서각 과정을 거쳐 탄생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참석한 마을 주민들은 "이 곳 모정은 뜨거운 여름에 농사일에 지친 주민들과 지나가는 외부 손님에게 꿀 같은 휴식을 제공하는 소중한 장소"라



순창읍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경천과 양지천변의 5곳의 육모정이 모두 현판을 달게 됐다.

며 "그동안 자주 이용하던 모정들이 비로소 이름을 갖게돼 너무 기쁘다. 앞으로 더 많은 애정으로 이곳을 들르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황숙주 순창군수도 현판 제막과 함께 제를 올려 순창과 각 마을의 번영을 기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군산시, 제22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성료

군산시는 4일 군산교육문화관에서 1,100여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제22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의 주최로 개최된 이번 노인의 날 기념행사는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맡아온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에 모범이 되는 모범노인과 노인 복지증진 기여자를 포상·격려해 민족 고유의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키고자 마련됐다.

사랑의 하모니, 난타공연을 시작으로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는 모범노인, 유공자 등 9명에게 시상표창이 모범노인 18명에게 지회장상이 수여됐으며 군산시장과 시도의원 및 노인관련 기관과 단체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어르신들의 불거리, 즐길거리를 마련해 행사를 추진한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가을철에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남원소방서, 더블(double)보상제 운영

남원소방서(서장 조용주)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 사용률을 높여 적극적인 화재 초기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더블(double)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더블보상제란, 주택에서 불이 났을 때 사용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2배로 보상해주는 제도이며,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화에 성공한 경우 소화기 두 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방서장의 표창도 수여된다.

한편 조용주 남원소방서장은 "소화기 한대는 소방차 1대에도 같은 역할을 한다며, 남원시민들 각 가정에 소화기를 비치해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만경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김제시 만경읍(만경읍장 최병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허진섭)는 지난 2일 만경읍 회의실에서 민관협력배분사업 및 자체특화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정기회의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었다.

허진섭 민간위원장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실제적인 형편은 어렵지만 국가의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지역 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그 가구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촘촘하게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병인 만경읍장은 "지역 실정에 밝은 위원들의 관심과 참여로 대상자 발굴과 사업 추진에 진력하고 지역 사회 내 복지를 안정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제2회 노래와 그림이 만났을 때 콘서트 개최

반암지역아동센터는 지난 2일 오후 7시 '제2회 지역민과 함께하는 노래와 그림이 만났을 때' 콘서트를 반암면 봉화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사랑의열매(북권위원회)와 K-Water 동화권 지사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콘서트는 장영수 군수와 김종문 장수군의장, 김용문 군의원, 정동일 장수교육장 김용준 장수농협장, 학부모 및 아동청소년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장영수 장수군수는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지역어르신들을 모시고 음악을 통해 세대간에 차원높은 문화 교류와 이해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준 센터 관계자와 어린이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이런 뜻깊은 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쳐 어르신과 어린이들이 하나 되는 힐찬 장수군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영순 센터장은 "앞으로도 지역민들에게 아이들의 열정과 순수음악을 전달해 마을공동체 정신과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심을 일깨워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익산경찰 제99회 전국체전 대비 방범활동 강화

익산경찰서(서장 이상주)가 제99회 전국체전(10.12~10.18)을 앞두고 방범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특히, 4일 오후 전국체전 개최로 선수단과 관광객 등이 늘어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절도, 상범죄 등의 범죄 발생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동포 선수단 숙소로 사용되는 원광보건전문대(구)기숙사 포함 3개소에 대한 CCTV 등 자체보안 시설 구비 여부 등 시설에 대한 범죄예방진단과 탐지기를 활용해 불법 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조치 했다.

대회 기간 중에는 임원 및 선수단의 157개소 숙박업소와 경기장 일대 주변을 연계 순찰 및 거점근무 예정으로 관할 지역관서와 숙소 대회 관계자외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긴급 상황 발생에 신속히 대비할 방침이다. 이상주 서장은 "전국체전이 안전하게 치러 질 수 있도록 범죄예방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